

## 3. 앞당겨진 3段階 金利自由化 措置

- 11월에 3段階 金利自由化 措置 중 1~2년 定期預金 및 2~3년 定期積金 金利 自由化 早期 實施 예정
- 金利와 資金 흐름에 대한 影響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企業의 信用度 提高 努力과 金利變動危險에 대한 認識 提高 必要

- 金融市場 安定을 바탕으로 11月 中 3段階 金利自由化 早期 實施 豫定
  - 이번 자유화조치로 1년이상 2년미만 定期預金 金利와 2년이상 3년미만 定期積金 金利가 자유화됨.
  - 한편 貿易金融과 商業어음 割引 등 韓銀의 再割引 支援을 받는 政策金融의 金利도 자유화 대상에 포함될지는 미정임.
  - 결과적으로 수신금리 중 市場金利 連動附 상품(MMC)금리와 요구불예금만 규제금리로 남게 됨.
- 金利와 資金 흐름에 대한 影響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이번에 자유화되는 受信金利들이 전체 受信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에 불과하고, 정기에금이나 정기 적금이 금리 자체보다는 「꺾기」나 주택 및 공모주 청약과 같은 다른 목적을 위해 預置해 두는 성격이 짙기 때문에 시장금리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이들 수신금리들이 시장 금리보다 상당히 낮으므로 자유화이후 소폭 現實化되어 상승한다 하더라도 이들 상품에 자금이 집중될 가능성은 희박함.
  - 따라서 本 措置의 意義는 실제 자금시장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보다는 自由化 日程이 加速化되는 契機가 될 것이라는 데 있음.
  - 그러나 만일 韓銀의 再割引 支援을 받는 政策金融 金利가 자유화된다면 상한선이 설정되는 제한적 자유화라 할지라도 정책금융 수요자들, 특히 원화 절상 국면에 직면해 있는 輸出業體나 자금사정이 어려운 中小企業體에게 있어서는 金融費用 負擔이 가중될 것임.
- 企業의 信用度 提高 努力과 金利變動危險에 대한 認識 提高 必要
  - 금리자유화로 금융기관간 수신경쟁이 과열되면 금융기관들은 예대마진의 보전을 위해 여신금리를 인상하는 한편 자금을 신용도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급하고자 할 것임.
  - 따라서 企業은 信用度の 提高 노력과 더불어 보다 저렴한 자금조달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금리자유화로 인한 金利變動危險을 最小化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함.

(김 난 주)